

우리 화섬산업의 성장과 구조변화(18)

4.3. 앞으로의 과제

우리 경제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취하면서 공업화를 진행시켜왔고 화섬산업은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초기의 경공업 중심의 공업화와 그 이후의 중화학공업화의 강조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었기에 오늘날과 같은 성장을 누리고 현재의 지위를 지키도록 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화섬산업이 우리 경제 일반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마찬가지로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아가 우리 경제가 보다 높은 기술을 가지고 선진경제로 탈바꿈해 나가는데 있어 기술개발이 절대적이고 또 이러한 과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적합한 능력을 가진 산업이 이 과업수행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화섬산업은 이상 우리경제의 취약점을 극복하는데 앞장서 나아가야 하리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화섬산업의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해 본다.

4.3.1. 경쟁력있는 화섬산업의 구축

화섬산업은 지속적으로 국제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산업으로 계속 변신해 나가야 한다. 우선 화섬산업은 그 산업 내부에서의 경쟁성을 고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래의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있을 수 있었던 안일에서 탈피하여야 하며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선진국의 화섬업계는 종래 공해배출 또는 환경저해와 관련된 제품의 생산을 감축 중단하고 높은 부가가치를 가져오는 새로운 화섬제품의 생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에 중국이나 동남아제국은 자체내에서 종래 방식의 화섬생산시설

을 늘여가고 있다. 그런데 30년의 고도성장을 한 우리이기에 경제성장기간이 10여년에 불과한 중국 등 아세아국가와 노동비용면에서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선진국에서처럼 기술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체제로 전향할 도리밖에 없다. 그러나 기술개발이 단시일내에 의도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당분간은 기업의 관리, 국제마케팅 등의 면에서 효율성을 발휘하여 중국,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임금면에서의 불리함을 보충해 가면서 기술개발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종래와 달리 앞으로는 정도를 밟아야 할 것이고 단기적인 어려움을 정부의 정책 또는 금융 세제상의 지원에 의해 모면해 보려는 생각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1992년 확장된 공업발전기금에서의 섬유산업 합리화 계획에 따르면 섬유산업은 직포, 니트, 염색, 봉제 등의 합리화시설을 위해 300억원, 패션 및 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20억원, 신소재 개발을 위해 20억원, 반월 배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해 50억원의 금융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지원은 국제교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떤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일반에 대한 기능적 지원이다. 따라서 그것은 1993년 이전에 많았던 외국에 의한 불공정무역의 비관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단 1993년에 들어와 미국대외정책의 보호무역주의적 색채가 심화되고 있고 또 세계 곳곳에서의 경제불력화현상이 현저해지면서 이제는 우리의 금융시장이 충분히 자유경쟁시장이 아니어서 은행권에서의 공금리와 비제도권 금융시장에서의 사금리가 차이를 가지고 있는 현상까지도 시비의 대상으로 되는 등 사정이 바뀌어지고 있는 면도 있다. 이들 두가지 금리의 차이를 사실상의 보조금으로 간주하여 반덤핑제소의 요인으로 삼는 데까지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등의 불공정무역에 대한 트집이 옳거나 그르다는 것을 논하기

이전에 이러한 비판과 반덤핑등 공격행위가 엄연한 사실임을 용인해야 하겠다. 그것은 우리 경제로서는 감안하지 않으면 안될 여건의 하나이기에 거기에 적응하도록 되어야 하리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화섬업체가 섬유업체의 하나로서 섬유산업 합리화 계획 등에 의한 간접적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섬업체는 앞으로 경쟁력의 유일한 요소로서 우월한 기술밖에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국제시장의 사정과 이반하여 존재하던 기왕의 화섬산업내의 비경쟁적 제도를 지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몇 개 밖에 없는 화섬기업 사이의 경쟁이 국제시장에서의 공개경쟁과 다르지 않은 경쟁이 되도록 시장구조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쟁력 있는 화섬산업은 그 자체가 경쟁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산업연관관계상 화섬산업과 연관관계를 가지는 석유화학산업, 의류산업 등 주변산업이 마찬가지로 경쟁적으로 되어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따라서 화섬산업은 이들 연관산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화섬산업은 그것의 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합리화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들로부터 화섬산업으로 공급되는 이른바 화섬의 원료에 대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중가격 또는 삼중가격이 성립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적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가격구조는 결국은 국제시장가격구조 하나로 통일되어야 하고, 단지 단기적인 국제시장의 가변성을 완충할 수 있는 안정화기금등에 의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화섬업체는 수입가격과 유리된 국내조달의 원료가격을 그것의 수입가격에 접근해 가도록 변화시키는데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석유를 가지지 못한 소규모 개방경제이다. 우리 경제는 근본

적 장기적으로 보아 석유화학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세계석유화학산업을 좌우할 수 없다. 그 반대로 세계석유화학시장에서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화섬산업은 현재 한정적으로나마 석유화학공업으로부터 화섬산업으로 공급되는 원료들이 가격이나 품질조건에서 국제시장에서 수입할 수 있는 것들과 어떤지를 검토해야 하고, 그런 검토에 따라 국내석유화학산업으로부터의 원료조달을 증감시킴으로써 석유화학산업이 마찬가지로 경쟁적으로 되는데 일조를 해야 할 것이다.

화섬산업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주변산업으로 더 중요한 것은 화섬제품을 원료로 이용하여 가공한 뒤 최종소비에 공여하는 의류 등 하류산업이다. 앞에서 본대로 화섬은 의류용 뿐만 아니라 산업용, 가정용 등 여러가지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용도가 다양화되고 수요가 개발되어 화섬제품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고가품시장으로 될수록 화섬산업은 더욱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종래 이러한 산업은 충분한 정도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 의류용 수출이 주문사상표 부착방식제조(OEM)의 제조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제대로 획득하지 못하면서 수입업자의 재량성에 좌우되는 불안을 가졌었고, 국내용이나 수출용 모두에서 염색 또는 디자인 등의 차원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 이런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대체로 화섬산업의 기업체들보다 작아 효율성의 추구 및 생산성향상 노력이나 기술개발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화섬산업은 이들 하류에 속하는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하고 차후 이들의 제품이 고가로 팔릴 수 있도록 구조고도화를 하는데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화섬산업의 경쟁력은 화섬산업은 물론 그의 주변산업의 효율화에 의해 규정된다. 나아가 그것은 이런 관련산업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조직되느냐에 의

해서도 좌우된다. 고부가가치를 가져오는 제품은 다른 제품과 차별화되는 제품이다. 때문에 화섬산업은 그것의 원료, 그것의 제품, 그리고 그것의 제품을 이용해 다시 가공한 최종제품의 차별화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 때 경쟁력을 지니게 된다. 여기에서 석유화학공업과 화섬산업의 단계에서 신소재가 개발되어야 하고 새로운 공정기술이 창안되어야 하겠다. 의류, 산업용 등으로 화섬제품을 이용하는 단계에서는 높은 품질과 신뢰성을 가지는 제품이 다양하게 제조되어야 하겠고, 차별화를 위해 염색, 디자인 등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산업연관관계에 따라 원료공업 및 의류산업 등과 관계를 가지는 화섬산업은 현재의 사회제도적 여건하에서 이러한 관계를 최선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른바 정보통신기술을 십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원료의 조달시기와 장소 및 규모, 제품의 방출시기와 장소 및 규모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과부족이 없도록 정보통신기술로부터의 소프트웨어로 재료와 생산물의 흐름을 관리함으로써 이른바 융통성 있는 제조체계 FMS :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를 구축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다.

장치산업인 화섬산업에서 애초에 장비와 노우•하우를 도입하여 생산을 시작했던 우리 화섬산업이기에 후발 중국이나 동남아국가들에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우위는 이들 설비의 운영과 관리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우•하우가 크다는 것에 기인한다 할 수 있었다. 이들 나라들에서보다는 설비의 운영•유지•관리에 있어 우리가 나을 수 밖에 없으며, 이와 관련된 기술인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른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화섬업계에서도 이러한 인력이 잘 조직되고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단 획득된 기술•기능이 훌륭하게 전수되느냐에 대해서 의아심이 없지 않다. 이러한 의아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화섬업계는 그 자신과 주변산업에서의 기

술 기능인력의 유지 교육에서 실효를 볼 수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장애 받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섬유산업과 마찬가지로 화섬산업의 수출도 섬유교역제도인 MFA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과거 화섬제품을 직수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의류 및 기타 화섬을 원료로 쓴 제품의 수출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고, 근년 화섬제품을 부분적으로나마 직수출하게 되 이후에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MFA의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일찍이 섬유수출을 해 온 나라로서 다른 섬유수출국가에 비해 MFA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섬유수출대국을 견제하고자 하여 소량수출국우대, 최빈(最貧)개도국우대, 주요 섬유수출국에 대한 상대적 규제강화 등의 움직임이 있다. 근본적으로 우리경제로서는 섬유수입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별 다른 영향력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갖게 된 수출쿼터를 전제로 하고 그것을 국내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비효율이 적시되기도 하였는바, 이는 시정할 수 있는 대상이다. 섬유쿼터가 새로이 수출을 시작하여는 기업에 대해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중소기업이 기왕에 쿼터를 보유하고 있는 무역업체나 대기업의 하청공장으로 전락하게 되곤 하였는데 이는 시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날로 개성화, 다양화, 감성화되어 가고 있는 세계섬유시장에서의 수요의 성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왕의 방식보다는 전문 중소기업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식이 채택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경매제도 등에 의존하는 개방쿼터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되어 왔다. 충격을 극소화하기 위해 제도개편을 점진적으로 할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쿼터의 배분에 대해 시장기구를 적합시켜 기존의 쿼터

로부터 발생하는 지대(地代)를 기왕의 대기업에게만 전적으로 귀속되게 하는 제도를 지양하자는 것이다. 개방쿼터를 경매제로 개별기업에 판매할 경우 응찰기업도 해당품목의 수출수익률을 계산하여 응찰할 것이므로 국민경제 전체로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전체쿼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쿼터판매에 따르는 이익은 종래처럼 기왕의 쿼터보유기업에게 귀속되게 되기 보다 재정에 귀속되게 될 것이다.

화섬산업이 직접 수출에 종사하는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화섬산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의 쿼터배분의 효율화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화섬의 직·간접수출을 모두 고려하면 섬유쿼터배분의 효율화가 긴요하다는 것은 화섬산업에게도 타당할 것이다. 여기에서 화섬산업은 수출쿼터의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다.

4.3.2. 기술개발

현재의 우리 경제에서 존재하는 각종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왕도(王道)는 기술개발이다. 훌륭한 기술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정교한 품질을 지니는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공정무역에 대한 시비도 뛰어 넘을 수 있고 경제성장과 더불어 높아지는 인건비의 상승도 손쉽게 감내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화섬업계에서 주목되는 기술로서 적시되는 것들은 자동화 생략화와 관련된 워터 젯 및 에어 젯 직기, 로봇텍스, 컴퓨터 디자인, 방사기술 등과 합성방법의 고급화 등이 있다. 이들은 생산공정을 효율화시키는 것이거나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고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는 것과 연관되고 있다.

용도별로는 종래 의류용, 산업용, 가정용 등의 용도와 관련된 기술과 더불어

어 토목섬유, 선박용 섬유, 의료용 섬유 등 최종 사용방법과 관련된 기술도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대체로 선진국에서도 최근 개발되기 시작된 것들로서 더욱 개선될 여지를 많이 가지는 것들이다.

우리 화섬업체가 가져야 할 기술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술 중 우리가 미처 지니고 있지 못한 것으로서 이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쉽게 지니게 될 수 있는 종류의 기술과 이들 선진국도 아직 지니고 있지 못하기에 이들과 경쟁적으로 개발해내야 할 종류의 기술이 있겠다.

또 화섬산업이 과거 공해산업의 일종으로 인식되어 왔던 점을 상기하면 앞으로의 화섬기술은 최소한 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 바람직스럽기는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어야 하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니어야 할 기술은 그 세세한 기능이나 용도가 무엇이든 불문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기술은 반드시 우리가 직접 창안해 낸 것에 한정될 필요는 없겠고 외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도입해다 써도 좋을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화섬업체는 화섬과 넓은 의미에서 관련된 기술을 망라하여 이른바 기술예측을 한 다음 그러한 예측에 근거하면서 기술도입과 기술개발노력을 조직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향하는 목표가 없으므로 무조건 R&D 지출을 늘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과 선진국에서는 존재하나 우리에게 없는 기술, 선진국에서도 존재하지 않아 전적으로 새로이 개발해야 할 기술들을 분류 정리한 다음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긴급하거나 획득이 용이하고 성과가 클 기술에 초점을 두고 그것들을 자체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도입할 것인가를 결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1970년대 초 중화학공업화를 시작하면서 경공업의 하나인 섬유공업의 중

요성은 그 이전보다 낮게 평가되기 시작하였고 1977년에 이르러서는 섬유공업의 한계론 또는 섬유산업의 사양산업론 등이 공식적으로 거론되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섬유공업의 일종인 화섬산업은 경제의 다른 부문보다 더 빨리 성장하면서 생산능력을 늘리고 내수이상 수출신장을 가져와 사양산업론에 대한 반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후적으로 보는 한 적어도 화섬산업은 아직까지는 사양산업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앞으로도 계속 지탱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중국이나 동남아 등의 추격에서 관리능력이나 마케팅 차원에서의 우위를 가지고 버틸 시간은 길다고 할 수 없다. 우리 화섬이 앞으로도 사양산업이 됨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선진국의 그것처럼 앞선 기술에 근거하는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해 내는 길밖에 없다. 여기에서 화섬산업도 기술예측을 한 뒤 그 중 우리에게 비교우위를 보장할 것을 선정하여 그것의 획득에 노력해야 하리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4.3.3. 다각화

어떤 경제활동이 효율을 제고하는 방법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는 방법, 주어진 기술하에서는 규모경제를 누리도록 생산규모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방법으로도 완전히 활용되지 못한 자원이나 생산요소가 있을 때 그러한 여력을 다른 용도로 쓰는 이른바 다각화의 길이 있다. 다각화는 이른바 범위의 경제에 의거하여 종래 불충분하게 사용되던 생산자원을 모두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 화섬업계는 탈섬유, 다각화를 향한 움직임으로서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의약, 제약, 전자, 환경산업 등으로의 진출의사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코오롱은 네덜란드의 DSM사와 합작하여 1995년까지 연산 9만톤 규모의 카프

를락탐공장을 건설할 계획이고, 동양나이론도 폴리프로필렌에 이어 카프를락 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삼양사는 환경산업 및 의료기기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제일합섬은 첨단소재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베이스 필름에 참여하고 있고, 선경인더스트리는 정미화학, 비행기, 차량용소재 및 유전공학사업에 발을 들여 놓고 있다.

이러한 다각화의 방향은 일본의 화섬기업들이 추구하는 바와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바, 화섬산업의 경영여력, 생산여력을 활용한다는 다각화의 기본 방향과 합치하는 것이라 보겠다.

다각화를 위한 새로운 투자는 기술예측과 관계되어 이루어져야 하고 화섬산업이 아닌 다른 산업의 적응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현상이 지구상의 모든 기업들이 범세계화되어 가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글로벌기업으로 될 수 없다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연관을 맺어 글로벌한 기업관계 속의 한 구성원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글로벌화 현상은 지난 10여년간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산업을 제1차산업, 제2차산업, 제3차산업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이 활용되어 각개 산업이 성격을 바꾸면서 제2차산업도 제3차산업적 요소를 가지게 되고, 제3차산업은 제2차산업적 요소를 가지게 되어 제2.1차산업, 제2.9차산업 등으로 산업을 인식하던 방식이 변질되고 있다. 그리고 다각화란 실상 이러한 산업의 변질이라는 측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화섬산업은 종래 기준으로 보면 제2차산업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각화의 길을 통하여 제2.1차 또는 제2.5차 산업으로 변질되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니던 경영여력을 새로운 기술과 여건에서 재평가하여 더욱

높은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융업화의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